

제목 : 이해 가능한 자살

202111673 박영은

목 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본론

2-1.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자살' 선택지>

2-2. <'때로는' 이해 가능한 자살>

제 3 장 결론

참고문헌

-제 1 장 서론-

매해 한국에서만 1 만 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한국인의 자살률은 몇 년째 OECD 1 위이고, 10 대~30 대의 사망원인 1 위는 질병이나 사고가 아니라 자살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살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에는 누구나 동의하면서도, 이야기가 나오면 '우울증'이니 '신변 비관'이니 '경쟁 사회 탓'이니 표면적인 이유를 대고 넘어간다. 학교나 직장에는 자살이 발생해도 쉬쉬하고 감추기 바쁘다. 이렇다 보니,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 자살 문제가 대두된 지 20 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는 근본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는 듯하다.

이에 대해 자살과 관련한 어릴 적부터 여러 차례 교육받아온 흔히들 말하는 예방책이나 대응법에 대해서 다루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애초에 '자살은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전제로 두고 있으며 반드시 절단되어야 하는 행동으로 본다. 필자 역시 자살 자체만 놓고 보면 비관적으로 본다. 그러나 자살이라는 선택지와 그 선택의 권리는 모두에게 존재하며 항상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제 2 장 본론-

2-1.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자살' 선택지>

'자살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많은 질문과 반론을 낳는다. 한 가지 예로 '우리는 삶과 생명을 얻은 것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도 자신의 선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선택을 모두 같은 시선에서 보는 것이 맞는가?

태어나기 전의 상태는 무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살이라는 행위를 하기 전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과 '이유'가 존재한다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즉, 인간에게는 자살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여기서 나는 적어도 자살이 옳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생명이라는 것의 무게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그 존재 자체가 귀중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 연장에 대한 의무를 가진 것이 아니다. 차라리 생명이라는 무상의 권리를 가지게 되었을 따름이다. 산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권리의 수행이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는 데에는 결코 순조롭지만은 않으며 역경과 난관이 존재한다. 이러한 역경과 난관을 피하지 않고 맞서서 정면돌파를 하는 것이 생명활동의 수행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과연 몇 사람을 보았는가? 역경과 고난에 맞서 싸우다 피할 곳을 발견하고 자존심을 다 버리며 굴욕과 순종에 갇혀 죽지 못해 사는 무력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렇다면 의지도 자존심도 없이 굴욕과 순종에 갇혀 생활을 겨우 유지하는 것도 생명에 대한 권리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살았다고 할 수 있는가?

셀리 케이건은 “하지만 삶의 기회를 부여받은 게 놀라운 행운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게 늘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건 끝까지 이를 악물고 지켜야 할 의무는 아니다. 때로는 포기가 정답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¹ 나는 이러한 저자의 말에 공감한다. 자기 권리를 모두 포기한 굴욕적인 생활을 살아갈 것이라면 차라리 자신의 생명 하나만이라도 자신의 자유와 권리로 처단하는 선택을 하라고 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하려고 한다면 자살의 일각에 최후로 한 번만 더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자살을 극복한 새로운 삶과 생활을, 인간의 가장 강한 수단인 삶이라는 것을.

2-2.<‘때로는’ 이해 가능한 자살>

우리는 자살 시도 실패 후 이를 극복한 이들을 향해 대단함과 존경을 표하곤 한다. 그들의 의지와 이겨 내기 위한 노력들은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 그러나 모두가 이들과 같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목사이자 동기부여 연설가인 닉 부이치치를 예로 들어보자.² 그는 짤막한 왼쪽 발을 제외하고는 양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없이 태어났다. 이 외에는 다른 질환이 없이 건강했지만, 커갈수록 다른 아이들과 차이점을 느꼈고 8 살 때 우울증으로 자살시도를 했었다. 하지만 닉 부이치치의 어머니가 한 중증 장애인의 기사를 보여주면서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게 자신뿐만이 아님을 깨달았다.

자, 여기서 마지막 문장을 살펴보면 닉 부이치치는 그의 어머니의 도움으로 깨달음이 있었고 이는 그가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살시도를 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닉 부이치치와 같은 주변에 도움을 줄 수 누군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장담할 수도 없는 데다가 혹여 그런 사람이 있었고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도 닉 부이치치처럼 그 문제를 극복할 만한 의지가 있다는 것 또한 확신할 수 없다.

자살을 극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만한 가치를 찾았거나 혹은 계기가 존재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반대로 가치와 계기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자살 당사자들에게 눈을 돌려보자. 이들은 혼자서 모든 걸 생각하고 결정할 것이다. 여기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저자 셀리 케이건은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으며,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살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파악해 죽는 게 더 낫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해 차분하고 신중하게 생각해 충분한 정보와 조언을 바탕으로 자발적 결정을 내려 타당한 근거를 갖는다면, ... 자살은 다시 한번(모든

¹ 셀리 케이건(2012), 『죽음이란 무엇인가』, 박세연 옮김, 엘도라도, 507 쪽

² “닉 부이치치”, 위키백과, 작성일 : 2020 년 2 월 16 일, 접속일 2021 년 12 월 13 일, URL: <https://namu.wiki/w/%EB%8B%89%20%EB%B6%80%EC%9D%B4%EC%B9%98%EC%B9%98>

경우에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경우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³

자살 당사자들이 자살을 시도하기 이 전에 다시금 살아갈 의지가 생길 이유와 계기가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모두가 그럴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혹여 있었다더라도 그것이 전혀 삶을 연장할 의미가 없었거나 혹은 자살을 선택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면 이는 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타당한 근거로 자살 외에는 다른 방법이 도저히 없었던 경우가 있는데 희생이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즉, 충동적인 자살이나 상황 도피를 위해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제 3 장 결론-

지금까지 자살이라는 선택지와 그 선택의 권리는 모두에게 존재하며, 자살은 항상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첫째, 자살행위가 결코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자살이라는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큼은 나쁘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 생명에 대한 권리의 수행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모두 버린 삶은 어쩌면 자신의 생명 하나만이라도 자신의 자유와 권리로 처단하는 선택이 죽지 못해 사는 굴욕적 생활보다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자살 당사자들이 자살이라는 선택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더 불우한 대상과 비교하며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너는 이겨내야 돼’라는 것이 늘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살 당사자가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놓은 것에는 어쩌면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며, 충분한 정보와 조언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결정했다고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³ 셸리 케이건(2012), 앞의 책, 503 쪽

참고문헌

(도서)

셀리 케이건(2012), "DEATH 죽음이란 무엇인가", 엘도라도

(웹사이트)

"닉 부이치치", 위키백과, 작성일: 2020년 2월 16일, 접속일: 2021년 12월 13일, URL:
<https://namu.wiki/w/%EB%8B%89%20%EB%B6%80%EC%9D%B4%EC%B9%98%EC%B9%98>